

退溪의 理學的 歷史認識**

李 潤 和*

• 目 次 •

- | | |
|--------------------|---------------|
| I. 머리말 | IV. 역사현상의 이해 |
| II. 理學的 역사인식의 형성배경 | V. 역사적 인물의 평가 |
| III. 역사발전의 動力과 가치 | VI. 맺음말 |

I. 머리말

退溪의 역사인식을 살피는데 있어서 당면하는 기본적인 어려움은 퇴계 자신이 구체적인 사학저작이나 체계적인 史論을 남기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역사사건이나 역사현상을 이해하는 퇴계의 관점을 통해 그의 역사인식을 살피는데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가 남긴 저작의 곳곳에 산재해 있는 원론적인 견해를 통하여 살필 수밖에 없다. 물론 퇴계에게도 『宋季元明理學通錄』 같은 저작이 있고, 각종 疏, 策問 등과 같이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언급이 있지만 史論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자료로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살펴야 할 구체적, 현실적 제반 문제에 자세히 접근하기 보다는, 우선 그의 사상적 특징을 역사적 본질문제와 관련하여 살피는 것이 쉽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대배경

* 안동대 사학과 교수

** 퇴계학 연구원, 『퇴계학보』 제75호·제76호(1992) 게재논문

이나 신분 혹은 계층의 이익과 관련한 현실적 역사인식 보다는, 理學的 가치관을 지향하는 기초 위에서 수용되고 강조되었던 역사의 본질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만을 중심으로 그 대략을 살피고자 한다.

II. 理學的 역사인식의 형성배경

퇴계(1501~1570)가 살다간 시대는 조선왕조의 건국을 주도한 勳戚 세력들에 의해 정치, 사회의 질서가 재현되면서 이들의 權貴化 추세가 현저해지는 한편, 관료전반이 관권을 통한 수탈을 자행함으로써 정치, 사회적 모순이 점차 극대화되기 시작하던 때였다. 理學的가치관의 소양을 쌓은 이른바 士林의 중앙정치무대로의 진출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모순에 대한 비판을 통해 勳戚세력에 대한 견제세력의 형성이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이들 사림은 權富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勳戚들이 내세우던 부국강병의 논리를 거부하고, 향약실시, 사학교육의 강화, 사창제실시 등의 주장을 통하여 향촌에서 자신들의 자율성 제고와 주도권 확립을 위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하였다. 이들은 아울러 중앙의 정치운영 또한 자신들의 자율성 위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在地中小地主로서, 또 도덕적 덕목을 주관하는 위치에서, 民을 지배하는 동시에 민생을 안정시키고, 군주에 복종하는 동시에 군주를 견제하는 도덕적 민생을 안정시키고, 군주에 복종하는 동시에 군주를 견제하는 도덕적 규범을 公道로서 존중하였다. 公道에 입각한 「治人」은 곧 치자의 사리추구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시 정치집단의 자기중심적 사리추구에 대한 비판인식을 깊이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비판적, 自治의 성향은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훈척세력과 정치적 충돌을 면하기 어려운 바탕을 지니고 있었으며, 실제 이들의 노력은 戊午土禍(1498), 甲子土禍(1504), 己卯土禍(1519)라는 값비싼 대

가를 치루고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사림의 중앙정계의 진출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훈척의 정치적 농단은 지속되었고, 사림은 다만 예우적 입지만을 지니고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사림이 정치, 사회에의 직접적인 참여와 봉사보다는 학문에의 연구에만 몰입하게 됨으로써 사변화되어가는 현상을 보이는 것도 결국 이러한 정치적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퇴계는 영남사림속에서 태어나 그속에서 성리학을 일찍부터 익힐 수가 있었고 그를 통한 지성의 수양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수양이 깊어질수록 무오, 갑자의 사화나 기묘사화 등을 통해 인식하는 현실정치와 학문적 지향을 통해 실현시켜야 할 이상세계간의 괴리가 너무 큰 데 대한 정신적 갈등 또한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때문에 그는 오랜 동안의 관직생활을 통해 현실 정치에 있어서의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학문과 정치의 합일점을 점차 터득해가면서 君, 民의 철저한 교화를 통한 저변세력의 확대에 기반하는, 근본적이고도 자생적인 사회개혁에 매진하고 기대하는 신념과 태도를 지니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신념과 태도는 단순한 철학적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현실적 비리에 대한 비판인식을 그만큼 깊이 한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결국 이 시기의 퇴계의 학문적 성과는 현실의 대한 비판 자세의 내면적 승리의 결과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III. 역사발전의 동력과 가치

朱熹를 중심으로 한 宋儒들의 역사인식에 나타나는 기본적 특징들은 퇴계에게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물론 시, 공간의 역사적 배경의 차이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시각에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대의와 관련한 원칙론에서는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역사발전

을 가능하게 하는 힘과 그것이 지니는 가치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오랜기간의 在野적 입장을 반영하듯 주희보다 비교적 사변적인 모습이 확인된다.

퇴계는 역사의 가치가 궁극적으로 天理를 증거하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역사사실이 의미하는 일반적인 ‘勢’를 통하여 역사발전의 동력을 귀납적으로 추론하려 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史官의 직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역사사실 그 자체가 가지는 객관적 가치에 대하여 주의하지 않았고, 또 그러한 사실을 정리하고 서술하는 문제에도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독서와 관련하여서도 군주에게 치국의 도리를 구체적인 사례로써 밝혀주는 데 좋은 자료가 되는 史書 보다는 경전을 읽을 것을 강조하였다. 史書는 경전에서 밝히고자 하는 理를 검증할 때 필요한 것이라 하여 史學이 지닌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史學을 理學의 附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주희에게서도 확인되지만, 퇴계의 史學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은 송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퇴계에서 있어서 개별적인 역사사실은 단지 천리를 引證하는 부분적 수단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역사발전의 근본을 파악하려는 체계적인 시도가 개별적인 역사사실과 관련하여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퇴계의 역사발전과 관련한 관심은 다만 천리가 어떻게 인간사회에 운용되고 있으며, 人事가 어떻게 천리에 근거하여 전개되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에 附隨되어 있을 뿐이었다.

퇴계는 이러한 천리가 역사적 사실로서 표현될 경우 개인 혹은 집단 의지와 관련을 갖게 되며, 그럴 경우 역사현상은 결국 사람의 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인식하였다. 心의 작용중 가장 중요한 것은 義를 主宰하는 것이기 때문에 天理를 體會하는 힘을 지니고 만물의 작용에 응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천지자연과 상호호응하게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람의 心을 道心과 人心으로 구분하여 道心을 통하여 천리를 구현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퇴계는 宋儒와 마찬가지로 특히 역사발전의 治亂과 관련하여 군주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즉 치란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군주의 마음(心)이 바르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인식하였다. 군주의 마음이 바르면 조정이 바로 서고, 百官이 바르게 되며, 사회 질서가 안정된다고 보았다. 군주는 天命을 받아 萬民을 統御하고 천리에 합당한 최고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결국 군주는 사회질서의 중심이고, 아울러 군주의 마음은 인간사회의 일체사물을 반영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道心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여겼다. 군주의 心이 바르면 道心이 드러나게 되고 반드시 理로서 만사를 처리하게 됨으로써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게 된다고 보았다. 君心の 청탁이 천하의 치란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이러한 인식은 결국 천하의 치란의 원인이 君主一身에 귀결되고, 군주의 현명여부가 국가의 興衰와 치란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저변에는 의심할 것도 없이 군주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자신이 속한 사림의 군주를 견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퇴계는 결국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인식 위에서 역사사건과 그 본질을 이해하고 판단하였고, 역사발전 그 자체에서 객관적 역사가 주는 교훈을 강조하기 보다는 역사사실을 통하여 그 사상 체계중의 도덕이념을 밝히려고 하였다. 이와같이 천리의 驗證을 목적으로 역사를 수단화하는 것은 결국 윤리적 성격의 역사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퇴계에게서 보이고 있는 이와같은 도덕주의에 대한 강한 집념이 다소 현실과 유리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에 대한 당위로서 현실을 도덕적으로 비판하고 규제하는 적극적인 작용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은 물론이다.

IV. 역사현상의 이해

퇴계는 먼저 주관적으로 인간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理를 설정하고 그 理에 의거하여 객관적 역사변화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때문에 일정한 역사 현상은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회에 당연히 지켜야 할 규율로서의 理를 검증해 낼 수 있을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여겼다. 송유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三代를 이상적인 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퇴계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역사현상의 이해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민족문제라고 할 수 있는 夷狄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화이론으로 표현된다. 화이론에 대한 관심은 중국 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에서도 깊은 관심의 대상이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 있어서 화이론은 정통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소위 “春秋義法”이라하여 유가의식 체계중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퇴계는 「甲辰乞勿絕倭使疏」에서 倭와의 관계를 春秋義法에 의거하여 규정하면서도 매우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들과의 관계가 파국을 맞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먼저 倭를 전통적인 화이관에 근거하여 夷狄이라 보고, 이적은 예의를 알지 못해서 군신간의 상하 분별이 없고, 또 그들의 생활은 무지하고 미련하며 사리에 어둡고 완고하여 거의 금수와 같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을 본성대로 살 수 있도록 대우하면 되는 것이라 하였다. 결국 퇴계는 이적을 王者의 교화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매우 엄격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퇴계가 말하는 예이란 군신상하간의 분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적의 이적된 所以가 바로 이러한 분별을 모르는 데 있다고 하여, 정치적인 의도를 구분의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만일 군신상하의 분별을 가지고 이적들에게 예의와 명교의 道로서 책망하며 시비와 곡직을 가리고 따지려 든다면, 그것은 결국 그들의 본성과 어긋나는 예악을 가지고 상대하는 것이니 아무런 효과가 없

다고 하였다. 이는 퇴계가 예의와 명분에 기반을 둔 화이론의 시각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 퇴계는 倭(島夷)가 일으킨 蛇梁之變은 개나 쥐새끼들의 도적질에 불과한 것이라 그들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이미 그들을 죽여 물리쳤고, 王法을 행하였으니 그들의 반성함에 넓은 왕도를 적용하여 그들의 청을 들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는 보편적인 왕도를 내세움으로써 현실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이적관리에 융통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퇴계는 倭에 대처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으로서 역사적 선례를 이용하여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그는 이적과 화친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하였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힘을 내세우지 않고 순하게 처리하면 이적들은 반드시 큰 은덕으로 생각해서 그 마음에 감동하고 기뻐하여 서로 이끌고 정성을 바쳐올 것이고 이것은 결국 德化을 시행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그의 德化, 왕도정치의 이상을 엿볼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송유들과 마찬가지로 퇴계에게서도 자연과 人事와 관련하여 천인감응에 대한 견해가 보인다. 퇴계 역시 천인감응의 주요대상을 일단 군주로 설정한 것은 다를 바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董仲舒와 劉向의 무리들이 어떤 재앙이 있으면 그것은 군주의 어떤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應驗이다”고 하는 것은 너무 구애되고 고루한 말이라고 비판하였다. 혹 재앙과 군주의 과오 사이에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군주가 이를 두려워 하지 않는 단서로 삼을 것이니 이는 오히려 군주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여겼던 까닭이다. 따라서 퇴계는 천지의 감응으로 나타나는 재해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天心이 군주를 사랑하는 所以가 무슨 까닭으로 그러한가를 알고, 또 마땅히 군주된자로서 天心을 받드는 데에 어떠한 도로서 해야할 것인가를 알아서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기 위하여는 군주가 하늘이 자기를 인애하는 所以가 공연히 그러한 것이 아님을 깊이 깨달아 안으로는 스스로 반성하기를 엄격하게 하고, 밖으로는 정치를 닦아 벼룩에 있어서 정성을 다하여 거짓 꾸밈이 없도록 하고, 하늘과 사람 사이(天人之際)의 처하는 바를 극진한 도리로 하게 되면, 비록 홍수와 가뭄의 재앙과 견책하고 경계함이 이를지라도 오히려 두려워하고 덕을 닦고 반성하는 힘을 더욱 베풀어, 하늘이 준 인애의 마음을 받들어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퇴계의 주장은 천인감응을 기본적인 「以理制君」의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었지 그 자체의 효능을 목적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천인합일의 유가적 관점을 성실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 역사적 인물의 평가

퇴계에게 있어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시대배경과의 관련성이나 자신들이 속한 신분 혹은 계층의 이익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것이 당시에 어떠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가와 같은 문제 보다는, 理學的가치관의 구현여부 즉 천리에 순응하여 道心을 어떻게 발휘함으로써 당시 사회에 유용한 작용을 하였는가와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와 같은 퇴계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의 경향은 「靜庵趙先生行狀」과 「言行錄」에 보이는 論人物條, 그리고 문장 곳곳에 보이는 인물평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퇴계는 먼저 행장의 기본적인 순서에 따라 趙光祖의 先祖와 탄생배경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서술하고, 그의 자질과 孝義에 뛰어남과 특히 司諫院의 正言 재직시의 간언을 칭찬하였다. 그리고 弘文館의 부제학으로 재직시 군주를 교화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군주를 착하게 하여 백성에게 혜택을 주고 유학을 번성

하게 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서, 군주의 마음은 정치의 근본이므로 그 근본이 바르지 않으면 政體가 의지하여 바르게 서지를 못하고 교화가 따라서 행하여지지 못한다고 하여, 군주에 대한 간언을 성실히 수행한 인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군주에게 中和의 지극한 공을 이루도록 권유하고, 정의와 왕도, 군자의 도리, 고금의 성쇠와 성패의 득실에 관한 언급을 통해 군주를 교화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아울러 평소 小學과 『近思錄』을 존송하고 그에 따른 바른 자세를 견지한 것에 대하여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교화를 통한 사회개혁의 시도가 부작용을 일으킨 데 대하여 비판적으로 서술하면서, 너무 속히 하고자 뜻하여 과실을 면하지 못하고 무릇 건의하고 시설하는 데 조급하게 굴어서 상황하고 과격하며, 늙은 신하들이 時義에 배척 당하여 공박을 당한 데에 부담을 느끼지 않음으로써 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비판이 물론 조광조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아니고 그와 뜻을 함께하는 士類들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과격한 개혁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퇴계는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조광조의 그러한 의도를 수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간파하고, 그럴 경우 조광조는 마땅히 벼슬길에서 물러나 공, 맹과 정자와 주자의 도의 실상을 더욱 크게 밝혀서 후세에 남겨야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고 38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게 되었다고 탄식하였다. 퇴계는 조광조가 요절함으로써 그러한 뜻을 펴지 못한 첫째 불행은, 등용함을 너무 갑자기 얻었고, 둘째 불행은 시세가 불리함을 알고 물러가기를 구하였으나 이를 이룰 수 없었는 데 있고, 셋째 불행은 귀양가서 그대로 일생을 마치게 된 데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광조에 대한 퇴계의 평가에는 자신의 출처관에 대한 견해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그리하여 그는 진작 조광조가 처음부터 세상에 갑자기 쓰이지 않고 집에서 한가히 지내며 궁한 촌락 가운데에서 숨어서 더욱 이 학문에 힘을 다하였더라면, 오랜 세월이 걸쳐 깊이 연구한 것이 더욱 넓고 두터워져 유가가 지향하

는 심오한 가치를 밝힐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퇴계는 자신의 관직 생활을 통하여 얻어진 경험을 조광조에 대한 평가에 투영하여 立言함으로써, 후세에 도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있는 것이지 한 때의 벼슬을 하고 하지 않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趙光祖에 대한 行狀의 내용으로 볼 때 퇴계의 인물평가의 기준은 자명하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가적 가치관의 구현에 필요한 인간상을 나름대로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VI. 맺음말

기본적으로 퇴계의 역사인식은 송유 중 특히 주희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과 시대적 환경의 차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송유들의 역사인식 안에는 그들 나름의 현실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퇴계에게는 그 나름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퇴계의 역사인식 속에는 16세기의 조선의 상황이 어떠한 형태로든 반영이 되어 있었고, 자신이 속한 사람의 정치적, 사회적 이해와 관련한 주장이 내재되어 있었다.

퇴계는 특히 재야적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가치관을 지향하려는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현실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각도에서 조명하고, 해결하고자 하였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현실문제에 접근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經世策의 실천을 통한 사회개혁보다는 자기수양의 방법을 통한 개인의 자각이 오히려 더 근본적인 사회모순의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을 이학적 가치관의 지향을 전제로 하면서 구체적인 사회경험이나 역사경험을 수단화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기 때문에 天理, 道心이라는 개념을 역사발전, 사회발전의 動力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역사현상을 인식할 때 자신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퇴계의 고민은 특히 대외인식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倭에 대한 태도에서 명분과 현실을 모두 고려한 매우 융통성이 있는 대책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 점에서는 전통적인 중국의 화이론과도 다르고 송유중 특히 주희와도 차이가 엿보인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 역시 이학적 가치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특별하게 독창적인 특징은 보이지 않지만, 나름의 出處觀과 用人論에 의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